

英 엘리어트에 비견할 ‘茶兄’...문학관 하나 없다니

사라이 문화자산이다

<23> 시인 김현승과 광주 남구



김현승은 지조의 삶을 추구했던 한국현대시단이 자랑하는 대표적인 지성 시인이다. 사진은 양림동에서 광주시 전경을 바라보고 있는 시인.

1919년 부친 따라 양림동 정착
고독·종교적 사유 속 시심 키워

광주 ‘인물 브랜드’ 소홀 아쉬워
서울 등 전국 문학관 58곳 대조

나는 이제야 내가 생각하던 영원의 면 끝을 만지게 되었다.

그 끝에서 나는 눈을 비비고 비로소 나의 오랜 잠을 깬다.

내가 만지는 손끝에서 영원의 별들은 흩어져 빛을 잃지만, 내가 만지는 손끝에서 나는 내게로 오하려 더 가까이 다가오는 따뜻한 체온을 새로이 느낀다. 이 체온(體溫)으로 나는 내게서 끝나는 나의 영원을 외로이 내 가슴에 품어준다. (‘절대(絶對) 고독’ 중에서)

찬바람이 불면 우리들 곁으로 살며시 다가오는 시인이 있다. 고독의 시인, 커피의 시인, 눈물의 시인, 다형(茶兄) 김현승(1913~1975).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지조의 삶을 추구했던 다형은 한국현대시단이 자랑하는 대표적인 지성 시인이다. 선비정신과 지사적 안목으로 자신만의 문학세계를 꽃피어 걸이간 참 시인이었다. 당대에 명망 있는 몇몇 시인들이 친일을 하거나, 시류에 영합하는 글을 쓰기도 했지만 다형은 문학정신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

그는 1913년 4월 4일 평양에서 6남매 중 차남으로 태어났다. 부친인 김창국 목사가 광주 양림교회로 부임하면서 1919년 4월에 양림동에 정착했다.

양림동은 소년 김현승이 무등산을 바라보고 시심을 키운 문학 공간이다. 20세기 초 미국을 비롯한 서구 선교사들이 처음으로 광주에 정착한 곳이 바로 양림동이다. 기독교의 영향을 받은 근대식 학교, 병원, 건물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다. 근현대의 시간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어 서구 문화의 흔적이 곳곳에 산재한다. 양림동을 ‘광주의 예루살렘’ ‘신앙촌’으로 부르는 이유는 그 때문이다.

“나는 다만 나의 삶에서 가장 절실하고 가치 있는 문제를 시의 대상으로 삼으면서 나의 생활과는 밀접한 관계에 있는 기독교에 관심을 집중하게 된 것 뿐이다. 뿐만 아니라 종교의 세계는 인간의 어떤 국한된 일부의 세계가 아니라, 삶의 근원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보편적인 세계라고 생각한다. 종교는 본질적으로는 철학의 세계라고 나는 생각한다.”(‘나의 고독과 나의 시’)

다형의 문학 속에 드리워진 양림동은 모티브의 저수지라고 할 만큼 창작의 발원지였다. 신앙과 사유, 고독, 근대의 분위기 속에서 문학청년은 시의 방향을 가다듬고 전착했다. 고독과 종교적 사유를 매개로 한 미학은 여느 시인과는 다른 문학적 아우라를 형성하게 했던 것이다. 그는 이러한 미학을 ‘건조미(乾燥美)’라고 말한 바 있는데, 아마도 그것은 생애적인 기질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화려하거나 진취적인 기질이 아닌 다분히 금욕적이며 겸박한 지향이 바로 인간 김현승의 모습이었던 것이다.

김현승은 숭실전문학교에 다니던 3학년 때인 1934년 5월 동아일보에 ‘쓸쓸한 겨울 저녁이 올 때 당신들은’과 ‘어린 새벽은 우리를 찾아온다 합니다’로 등단했다. 이후 서정성 짙은 시와 종교적 성찰이 담긴 시를 발표하며 자신만의 문학 세계를 열어왔다. ‘가을’, ‘고독’, ‘신앙’으로 집약되는 그의 시세계는 후배 문인들과 문청들에게 흠모의 대상이 되었다.

지난해에는 김현승 타계 40주기를 맞아 풍성한 추모행사가 열렸다. 다형 김현승시인기념사업회(회장 손광은)는 예년처럼 전국학생문예작품공모를 진행했다. 공모전은 전국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운문과 산문으로 나누어 실시했으며 입상작은 ‘문학춘추’에 게재됐다.

또한 제자들이 주축이 돼 김현승의 시인의 삶과 문학을 조망하는 저서도 출간됐다. ‘다형 김현승의 삶과 문학’에는 다형의 시와 산문 그리고 평론가들이 조명한 시 세계 등이 수록돼 있다. 특히 문순태 작가를 비롯, 고 문병란 시인, 장정식 수필가 등이 ‘제자들의 스승 새김’ 주제로 다형을 회고하기도 했다. 게재된 글들은 모두 절대 고독 속에서도 견고한 문학의 길을 걸어왔던 다형의 인간적 면모가 담겨 있다.

작년 9월에는 기념회 주축으로 시낭송회, 학술토론회 등 김현승 문학대전이 열렸다. 다형이 학창시절을 보내며 시심을 다듬었던 양림동 일대를 배경으로 다양한 행사가 개최됐다. 서울에서 김현승 시인 40주기에 맞춰 추모시 낭송회와 ‘젊은 날의 흰 앞발로 굳게 웃던 꽃들이여’를 주제로 학술 발표회가 열렸다.

다형 김현승 시인 기념사업회를 이끌고 있는 손광은 시인(전남대 명예교수)은 “다형은 영국의 엘리어트(Thomas Stearns Eliot)에 버금가는 시인으로, 지성적 감수성으로 세계를 시화한 광주의 대표적인 시인”이라며 “문화수도인 광주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인물 브랜드로 가야 하며 그 중심에 다형 김현승이 있어야 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아쉽게도 광주에는 김현승 문학관이 없다. 서울에 7개, 경기·강원에 6개를 포함 전국에 문학관만 58곳이 있으며 추진 중인 곳까지 감안하면 70곳이 넘지만 광주에는 없다. 다형이라는 인물 브랜드가 있음에도 지역에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가 예향, 의향, 미향이지만, 사실은 문향(文鄕)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다.

이준배 다형김현승시인문학연구회 사무국장은 “김현승 시인은 순수한 시심을 기독교적 세계관을 모티브로 서정성을 확장하고 구축했던 문인이다. 광주에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비롯, 미술관, 문예회관 등 다른 문화시설이 많다. 그러나 유독 문학관만큼은 여전히 배제돼 있다. 다른 지역에서 볼 때 광주는 김현승 문학이 꽃을 피운 지역으로 알고 있을 만큼 다형의 지명도가 높다. 더 늦기 전에 광주에서 그를 기리는 문학관이 건립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천기자 skypark@kwangju.co.kr / 사진제공=다형김현승시인기념사업회·광주일보 DB



양림동에 있는 다형 김현승카페.



양림동은 소년 김현승이 시심을 키운 문학 공간이다. 사진은 오랜 기념비.

특허방수 2중단열 방수 | 전천후 시공성 | 절연방식 시공 | 내구성 탁월

특허 제10-1097784호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0548189호

하자없이 20년은 너끈히가는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옥상방수 | KRAI 한국건축사협회 |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특허방수 **트라이슈머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특허 제10-1239196호
특허 제10-0562035호

넓은 건축물을 새 건축물로~
차별화된 익스테리어로 건물의 새로운 가치창조를 통한
재테크 효과 ~
방수와 디자인까지 일석이조!
단열효과로 냉난방비 절감까지~

외벽 패턴: 대리석패턴, 대리석시공, 홍나무, 스텔라티라, 리얼우드, 벽안(안방)패턴

시공후

※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아트패션시트 카탈로그) 다양하고 아름다운 패턴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이파엘지** 를 쳐주세요.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광주전남대리점 **10621 511-0444**
목포 T.(061) 284-0485 / 여수 T.(061) 683-0485 / 순천 T.(061) 726-0482 / 광양 T.(061) 795-0485